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9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6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뚜벅뚜벅 걸었던 그 길에서 / 서수연(화면해설 작가)

### 장애인계 뉴스

1. 8월부터 통신요금 음성안내고지서로 제공
2.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3.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절반 이상 “서울시 보행하기 불편하다”
4.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 점자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5. 보이스아이, 독서확대 기능 추가된 앱 개발
6. 함께 걷고 함께 즐기는 ‘문경새재 공감여행’
7. 부산점자도서관, 제2회 전국시각장애인 중창대회 개최

기획: 장애인과 문화의 절친노트를 꿈꾸며

독자마당: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남긴 것은? / 천상미(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운영지원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6일~5월 31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7)

~~~~~

포커스

뚜벅뚜벅 걸었던 그 길에서

서수연(화면해설 작가)

겨울이 쉬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던 올해 초봄, 더 이상 일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툭 건드리면 폭발할 듯 온 몸을 옥죄기 시작했다. 몸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 뭐라든도 훌린 사람처럼 훌쩍 제주도로 떠났다. 화면해설 작가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다. 그 사이 1호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술한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화면해설을 써냈다. 제목을 다 적으면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어갈 정도로 양이 방대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 강의도 하면서 오직 일과 함께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내 속에 있던 것들을 꺼내 쓰고, 말라비틀어질 때까지 쥐어짜서 쓰다가 마침내 녹다운 된 것이다.

너털너털 만신창이가 돼서 찾아간 제주도는 청명한 하늘과 따뜻한 바람, 씻어서 막 건져 올린 듯한 청정한 자연으로 나를 와락 안아주었다. 감동이었다. 제주 올레길 7코스의 시작점 외돌개에서 출발한 나는 걷는 내내 탄성을 질렀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 눈물이 핑 돌아서 망부석처럼 한자리에 서서 눈이 시릴 때까지 풍경을 보고 또 보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밥 때를 놓쳐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마냥 좋았다. 눈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옥빛 바다가 넘실대는 게 좋았고,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 발담이 구불구불 쌓여있는 시골길도 좋았고, 알록달록한 함석지붕을 인 낮은 단층집들이 사이좋게 엮여 있는 것도 사랑스러웠다. 물길하는 해녀들, 한 집 건너 만나는 백구나 황구들, 마실 나와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마을 어르신들, 학교를 마치고 뛰어가는 아이들... 모든 것이 예쁘기만 했다.

올레꾼들을 만날 때마다 포옹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은 한없이 붕 떠올랐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걸었다. 올레길은 걸어가는 나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물을 안겨주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길은 한적한 오솔길로 이어졌고 그 길은 다시 나무가 무성한 숲길로 연결되었다. 맑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그 길을 다 걸었다 싶으면 어느새 눈앞이 확 트이며 거짓말처럼 바다가 나타났다. 물빛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의 모든 파란색과 하늘색을 한데 모아서 최상의 숨씨로 그리레이션 해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올레길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무계획으로 온 내가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이 탐이 나서 2박 3일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올레코스를 욕심을 내버린 것이다. 이틀째 날, 1,2코스를 다 걸겠다고 작정한 나는 어느새 완주에만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 뒤부터 더 이상 자연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로지 앞만 보고 걸었다. 가끔 앉아서 다리쉼을 할 때 주변을 급하게 훑어보았을 뿐, 무거워진 다리에 또 힘을 주고 걸어갔다.

이날 밤, 나는 그만 사단이 나고 말았다. 1코스 완주하고 2코스 반을 걸었던 나는 숙소로 돌아가서 2층 침대를 배정받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온 몸에서 내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근육과 뼈들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지른 것이다. 녹초가 돼서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천장의 그려진 단조로운 무늬들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여기 왜 왔던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왔던가. 첫날 제주도에 도착해서 7코스를 걸을 때 내 표정은 어땠나. 내 발걸음은 어땠나. 자연을 바라보는 내 두 눈은 얼마나 반짝였나. 괜히 눈물이 주르륵 났다. 내

가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여유 좀 즐기자고, 한껏 게으름피우자고 했던 내가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몸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으며 환자처럼 숙소에 누워있다니...

올레 코스 완주 못해도 좋으니까 좋은 경치 나오면 몇 시간이고 구경하고, 근사한 카페 보이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다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왜 못 들었나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욕심이었다, 라고 결론짓는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 욕심이 바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자연발화 할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이 정말 바빠서, 온전히 일이 많아서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다분히 내 욕심도 있었다. 무언가를 이루어보자, 하는 욕망이 컸다.

그런 생각을 천천히 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던 나는 피식피식 웃으며 울음을 거둘 수 있었고 조금은 성장한 나를 스스로 보듬고 토닥토닥 해줄 수 있었다.

지금의 나? 여유가 생겼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놓았다. 그랬더니 새로 쫄 것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 사방에 흥미롭고 반짝이는 보석 같은 일들이 서로 자기를 잡으라고 얼굴을 말갱게 씻고 기다리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느릿하게 걷는 산책이다. 강변을 거닐고, 동네를 거닐고, 공원을 걷는다. 예게, 그게 뭐냐 싶겠지만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며 걷는 산책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

두 번째는 운동이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던 운동을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한다. 처음 며칠은 몸이 고됐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개운했고 다음의 일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소식과 채식 위주의 식단이다. 적당히 먹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속이 편안하다. 그런 편안함은 생활 전반에 좋은 기운을 미친다.

이렇듯 제주 여행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주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걷던 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조금은 성장하여 돌아왔고 다시금 애정을 담아 나의 일을 마주보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꿈꾸고 있다. 다시 떠날 여행은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놀멍쉬멍걸으멍 하자고, 그래서 자연이 주는 긍정 에너지를 가득 채워 오자고, 그 에너지로 화면해설 일도 옮기 나게 반들반들 닦아보자고...그런 다짐들을 하며 빙그레 웃어본다.

~~~~~

## 장애인계 뉴스

### 1. 8월부터 통신요금 음성안내고지서로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올해 6월부터 시·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통신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가입, 해지, 이용 단계 별로 제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금년 8월부터 시각장애인이 요금고지서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고지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 통신사 홈페이지의 음성지원 기능 강화와 가입 관련 서류의 음성 및 점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요금제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인 요금감면 서비스의 내용(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감면비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문자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 동안 통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온 장애인의 통신 서비스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조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계속 개선·보완하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강제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2.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서울시는 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한 아이디어를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모를 통해 일반시민과 시각장애인, 장애인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টে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고려한 아이টে 및 아이디어를 그림이나 스케치 등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설명하는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6월 15일(금)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충정로)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6월 13일 소인까지 유효) 등으로도 가능하다.

응모된 작품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 등을 입선작으로 선정하여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입상자는 설계 시 참여는 물론 공사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4년 5월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음악치료실, 기초재활실, 화면해설스튜디오, 녹음부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보강공사가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2011년 실시한 두 번의 안전진단에서 즉각 철거해야 하는 위험시설물(E 등급)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결정되었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자활 및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smih.seoul.go.kr](http://smih.seoul.go.kr)) 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02-3708-2653)로 문의하면 된다.

### 3.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절반 이상 “서울시 보행하기 불편하다”

서울시의 보행환경조사에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 이용약자의 51%가 서울시 보행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보행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4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시각장애인, 휠체어·유모차 사용자 등 교통 이용약자에게 서울시의 보도를 이용하기 편리한지를 묻는 질문에 51%의 응답자가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가 모두 교통이용약자가 아님을 감안하면 실제 교통이용약자가 느끼는 불편은 조사결과보다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보행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보도상의 불법주정차(40%)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잦은 보도공사(18%), 보도 상 불법 노점상 영업(17%)순으로 조사 되었다. 보도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72%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전화신고(64%)로 응답했고, 홈페이지 민원신고(20%), 모바일신고(10%), 직접방문 민원신고(6%)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 서울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추진방향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4. 경북궁 등 4대궁과 종묘, 점자로 감상할 수 있게 돼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시각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해 6월 1일부터 경북궁, 창덕궁 등 4대궁과 종묘에서 시각장애이용 점자 안내리플릿을 배포를 시작했다.

점자 안내리플릿은 각 문화재별로 제작하여 배포되며, 궁궐의 연혁, 주요 권역에 대한 설명과 관람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궁궐 감상 시 안내 해설사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 의존해왔으나 이번에 점자 안내리플릿이 제작·배포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궁궐 관람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안내(창덕궁),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등 장애인 관람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이용 점자 안내리플릿은 4대궁과 종묘 입장 시 매표소나 정문 입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5. 보이스아이, 독서확대 기능 추가된 앱 개발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문업체인 보이스아이가 시각장애이용 2차원 바코드(이하 보이스아이 코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독서확대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고 지난 5월 25일 밝혔다.

기존의 보이스아이의 애플리케이션은 보이스아이 코드를 찍으면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했었는데, 이번에 저시력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독서확대기 기능이 추가되었다.

독서확대기 기능은 최소 1.2배에서 최대 11배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바탕색과 글자색을 5가지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어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했다는 게 보이스아이 측의 설명이다.

보이스아이 박민철 대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로 휴대용 독서확대기를 따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으며, 저시력장애인 또한 눈이 피로할 때 음성지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아이 앱은 이밖에도 보이스아이 코드를 찍은 정보를 목차별로 자동 저장해 보관할 수 있는 스캔보관함, 음성태그라벨을 활용한 음성태그 기능, 신권 지폐를 구별해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지폐인식기능(부분 유료), 상품이나 의약품에 인쇄된 1차원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상품정보 인식 기능 등도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아이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 6. 함께 걷고 함께 즐기는 ‘문경새재 공감여행’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5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임직원과 함께 문경새재로 ‘공감여행’을 다녀왔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50여 명은 공단 직원들과 일대일로 짝을 이뤄 문경새재를 함께 걷고 레일바이크를 타며, 여행의 설렘을 즐겼다.

홍은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장은 “서로의 정을 나눈, 그야말로 공감여행이었다.”며, “오늘 함께해준 공단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인연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연의 역할인 취업확대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 중.”이라며, “이는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고객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단 임직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2011년 ‘디딤どり’ 사회공헌단을 출범했으며, 시각장애인용 도서 제작지원·아동 대상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 7. 부산점자도서관, 제2회 전국시각장애인 중창대회 개최

부산점자도서관(관장 이경재)은 지난 5월 23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시각장애인 중창대회 ‘봄 드림 하모니’를 개최했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9팀이 성가곡, 클래식, 외국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모니를 선보였으며, <참 예쁘네요>를 부른 ‘소리모아 중창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KB국민은행은 이날 창작동화제를 통해 발행한 ‘동화는 내 친구(통권 제21호)’를 점자도서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했으며, 해당도서는 부산점자도서관을 통해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300곳에 배부되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중창대회는 시각장애인에게 노래를 통해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 소통과 배려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부산점자도서관의 관계자는 “싱그러움 가득한 오월에 펼쳐지는 ‘봄 드림 하모니’가 앞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전국에 울려 퍼지길 바라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기획

장애인과 문화의 절친노트를 꿈꾸며

6월 초 열린 뮤지컬 시상식에서 조승우 씨와 옥주현 씨가 각각 남녀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뮤지컬도 몇 년 전부터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처럼 매년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영화만큼이나 대중화되고 다양한 계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 대규모 전시 등 과거 영화 등에 머물렀던 문화생활의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여가생활은 어떨까. 비장애인만큼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장애인의 반의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간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묻는 질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92.4%가 TV시청이라고 답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56.7%의 시각장애인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향유권’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 외에 창조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만의 독특한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를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차별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이 문화를 즐기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가장 대중화된 문화인 영화를 보러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일까. 우선 문화시설 및 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필자는 대학교 때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일을 했지만 시각장애인 관객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모든 공연 때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연장에서 장애인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몇 년이 지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직원이 된 이후 시각장애인 관련 행사를 필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공연장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공연장에서 왜 시각장애인을 볼 수 없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1,500석이 넘는 큰 시설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등의 편의시설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공연장이 그 정도이니 소공연장들은 더 말하지 않아도 사정이 짐작이 갈 것이다. 장차법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를 관람석 1천석 이상인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 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출입구, 관람석,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마련과 예술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

장차법에 따라 2015년까지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는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니, 시각장애인이 좀 더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 콘텐츠 자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각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다. 최근 들어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배려해 화면해설이 삽입된 ‘배리어프리 버전’이 제작되고 있으며, 개봉 후 한참이 지나서야 볼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최신영화도 화면해설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영화가 이제 물꼬를 트고 물길을 넓혀가는 단계이다 보니, 라이브로 진행되는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37.5%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정부에서는 매년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가구당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40억, 2010년 67억, 2011년에는 347억으로 대폭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의 이용률은 10%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장애로 인한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문화바우처의 이용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이용하려고 해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바우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장애인 단체나 기관을 문화바우처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광고문구가 떠올랐다. ‘왜 이런 일을 하나고 묻는다면, 문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00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이 말대로 문화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면, 어찌면 문화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 장애인과 문화의 거리가 지금보다 가까워지길, 서로 친한 친구사이가 되길 바라본다.

~~~~~

## 독자마당

###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남긴 것은?

천상미(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운영지원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를 기억하는가? 하멜른시가 골칫덩이인 쥐뿔을 없애 주는 대가로 상금을 내걸었다. 이때 홀연히 나타난 한 사나이가 피리 소리로 쥐뿔을 유인해 강물에 빠뜨려 해결했다. 그러나 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씻었다.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한 양갈음으로 사나이는 피리를 불어 이번에는 아이들을 모조리 데리고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다.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서양 동화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동화에서 사나이의 뒤를 쫓지 못하고 도시에 홀로 남은 한 아이를 기억하는가. 이 아이는 다리가 불편해 다른 아이들처럼 사나이의 뒤를 따라가지 못해 시의 유일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가 느낀 감정은 안도였을까? 아니다. 주변에 놀아줄 친구가 남아 있지 않아 아이는 외로웠다. 내 기억엔 그렇다.

하멜른의 유일한 아이와 같은 존재가 장애인이다. 그리고 나는 시각장애인이다. 혼자 있을 때 나는 내 장애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거리를 걷고, 버스를 타고, 직장에서 일하고, 친구와 대화할 때 나는 내 장애를 절절히 통감한다. 관계 속에서 장애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직장 동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장애로 인해 하지 못한다는 것, 친구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장애로 인해 모른다는 것에 소외와 좌절을 느낀다. 내가 하멜른에 남겨진 아이에 장애인을 비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피리 소리는 컷가에서 멀어져만 가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이런 소외감은 우리 장애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애인의 신체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 대한 웹접근성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왕 제작하는 것 웹접근성에 맞도록 누리집을 제작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방문했을 때 기분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는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쇼핑하고, 공연권을 예매하고, 금융거래를 하며,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적어도 웹 공간에서만큼은 우리 장애인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세상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참 정이 많다. 잘 몰라서 하셨던 말씀이겠지만 힘든데 왜 나왔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다지도 박한지. 생각해보면 이런 모순도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어쩌면 이런 하소연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좋아지는 속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내 경우만 해도 그렇다. 엠에스엔(MSN)을 할 수 있게 되자, 친구들이 모두 네이트로 가버렸다. 다음에 내가 다시 네이트를 할 수 있게 되자 친구들은 이번엔 새로 등장한 소위 말하는 소셜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옮겨가버렸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가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속도를 맞출 수 있으려면 의식이 필요하다. 제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지만 의식이라면 변화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의식은 장애인을 이해하려는 그 무엇이다. 필요가 발명을 낳듯이 의식이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떻게 해야 생겨날까? 그건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5월 16일~5월 31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5월 16일(수요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 회의’를 주재했으며, 다음날인 17일(목요일)에 ‘제19대 조선의원 의정연찬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료와의 만찬’에 참석했다.

18일(금요일)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19일(토요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간담회’와 ‘국립서울맹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모금 바자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문화제’에도 자리를 함께 했다.

21일(월요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실장과 만나 면담을 나눈 데 이어, 국립중앙도서관 심장섭 관장과의 만나 업무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2일(화요일)에는 ‘발달장애인법제정연대와의 간담회’ 주최 후, 22일부터 26일(토요일)까지 진행된 ‘전국시각장애인복지관장 연수회’에 참가했다.

28일(월요일)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와 K리그, 한시련이 함께하는 ‘Seeing is Believing 기금마련 축구자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9일(화요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의 면담 후, 한시련 12차 정기이사회를 주재했으며, 같은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한 제18대 국회의원 초청 만찬에도 참석했다.

30일(수요일)에는 국회조찬기도회에 이어,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히딩크 드림필드’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31일(목요일) 서울시립 곰두리체육센터 인수인계식과 수원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는 것으로 5월의 일정을 마쳤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7)

### 1) ‘아기’와 ‘애기’ 어느 것이 맞을까?

-답: 아기

-해설: 현대국어에서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말들은 방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모음 역행동화란 뒤의 ‘이’모음 혹은 ‘이’모음을 갖고 있는 이중모음(아, 어, 오, 우)가 각각 ‘애, 예, 외, 위’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다리미, 손잡이, 아기, 어머니, 학교, 아지랑이, 창피하다’가 ‘대리미, 손잡이, 애기, 예미, 핵교, 아지랭이, 창피하다’로 바뀌는 것인데,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푹내기, 신출내기, 냄비’ 등은 이미 익숙해진 언어현실을 고려해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 2) ‘끼어들다/끼여들다’ 이 중 맞는 말은?

-답: 끼어들다

-해설: “갑자기 트럭이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와 같은 경우에는 ‘끼어들다’가 맞다. ‘끼다’를 ‘끼이다’의 줄임말로 다룬 일이 있어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끼어들다’를 표준어로, ‘끼여들다’를 비표준어로 명시하여 이런 혼란이 없도록 했다.

-예시: 이곳은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본)」(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